

『14시 12분 시작』

000 :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지금부터 청계천 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 :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세 분입니다. 공동위원장 세 분인데 우리 000님 그리고 000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인데요. 아마 총회는 000님께서 리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일정 때문에 오늘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000 위원장님보다 조금 더 일찍 오는 바람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의입니다만 만난 뽀뽀 해서 반갑고요. 특히 청계천 현장에서 우리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상당히 뜻 깊고 오늘 2차 회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100%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강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000님도 같이하고 계시는데,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청계천위원회가 훨씬 더 그야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하는 걸 쓴다면 빠르게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지금 2차 회의를 오늘 합니다만 한강위원회가 훨씬 더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상당히 도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강위원회와 청계천위원회가 합석해서 '유' 개념으로 한번 물 문제를 그렇게 다뤄보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000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강이나 청계천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복원이 되든 혹은 정비가 되든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싶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가 청계천과 관련해서는 2단계 청계천 복원 혹은 정비에 중요한 초석을 깔고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 2차 회의가 그런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000 : 다음은 공동위원장님이신 000 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셔야죠.

000 :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000 : 그러면 제1부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운영세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세칙안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합니다.

000 교수님께서 주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000 :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말씀하신대로 운영세칙 수정안, 지난번 우리 1차 회의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수정안이 준비돼서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안건인데요. 운영세칙의 수정안 심사의결주문에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고 되어있고요.

제안이유는 청계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본 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거였고, 많은 회의안건을 위원발의안건, 심의, 자문 또는 보고안건을 구분하고 안건별로 별도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회 개최시기를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정례화한다는 것이고, 의결정족수, 회의진행시 참여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비공개 회위원칙과 서약서 징구 등 규정하는 사항으로 회의참석 및 안건 사전 검토 등과 관련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에 내용은 세부 운영세칙안을 봐주십시오.

제1조 구성목적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토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목적 등입니다. 이 운영세칙은 시장방침 제54호에 의거 청계천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계천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호 복원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연구검토·분석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청계천으로 개선·보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2호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청계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문제 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청계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발제 및 토론, 안전발의, 심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3호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시민, 학계 전문가, 시위원과 내부 위원 업무관련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하며 위원 수는 25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당연직위원장과 위촉직위원장을 둔다고 되어있고요. 위촉직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임기와 해촉 등은 내부방침에 따른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역사문화분과, 생태환경분과, 도시제도개선분과 등)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위원의 위촉 등입니다.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는 안전의 상정 등은 회의안전은 위원발의안전, 심의, 자문 또는 보고안전으로 구분한다. 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심의, 자문 또는 보고안전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고사항은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 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안전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의결정족수 등 회의진행입니다.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하여 작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전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등입니다. 회의록작성을 위해 속기사를 두며 속기사는 회의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속기사는 회의진행 및 속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결과의 관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칙은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000 : 지금 상정된 운영세칙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보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입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요. 여기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쪽 명단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내부위원을 아마 3급 이상 공무원으

로 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때는 ‘몇 급 이상’이라고 직급을 규제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직급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대표자가 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 학예연구부장 같은 경우는 직급은 4급 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과거 오랫동안 청계천복원업무에 담당을 했었고 현재도 박물관의 학예연구부장으로 직무대리 상태일 겁니다. 임용이 이번에 새로 선임돼서 근무하시다가. 그런 분들은 한번 여기 위원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느 기간까지 위원활동을 몇 년 하시고 그만두시지만 실제 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직들은 평생 이걸 해 나가고 또 기관이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 관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이런 부분은 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0 : 과장님 실무적으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급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철폐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000 : 담당 소속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공무원들이나 관계인은 나와서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과위원회할 때 누구를 불러서,

000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 관장을 한다거나, 그게 소속 기관장을 의미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청계천복원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역사복원부분과 하나가 생태복원부분인데 역사복원에 있어서는 역사박물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중요한 기관인데 그 기관이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회의 참석하는데 제외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000 : 지금 위원의 추가선임문제인데요. 위원의 추가선임문제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제 약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계천시민위원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와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위원의 구성문제는 나중에 다시 명

단이 바뀔 때 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데 지금 추가선임은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구성을 추천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000 : 추가선임문제보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급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제한이 되는데 그걸 3급 이상 공무원을 말을 제외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학예직 같으면 4급이라도 전문직으로서 여기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000 : 사실은 담당국장님을 모시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빠지고 그 분을,

000 : 아니, 내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도 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분은 학예직으로서의 전공자이고 또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해 나갈 분이잖아요. 저는 인사발령이면 내일이든 내년이든 갈 사람이고 그분들은 그 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직에 있어서는 계속해 나갈 사람들이는데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같이 토론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관계공무원이야 발령 나서 가면 그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000 : 분과위원회 할 때 참석해서,

000 : 우리 과장님은 조금, 우리 실장님 줘.

000 :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위원을 우리가 뽑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세칙에 3급 이상 해 놓으면 또 거기에 우리가 얹매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급을 제외해 버리면 필요시 우리는 4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4급이라도 하고 3급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000 : 3급 이상만 빼면 되겠네.

000 : 예, 그렇습니다.

000 : 다른 위원회 구성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 구성하고의 평

형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엄격한,

000 : 저희도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해 보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직급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인 위원회에는 있어서.

000 : 그냥 그 관례를 따르시고, 그걸 규정하는 문제하고 또 특정인을 모시는 문제는 조금 별개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급’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것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제척하는 게 어떤 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인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밖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분과 단위에서 이를 태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외부전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때는 우리 한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명이라는 정원 외에 일종의 위원으로 모시는, 뭐 한시적인 위원이 되겠죠. 그런 위원도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한 분을 적재적소에 찾아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000 : 예, 괄호 친 것만 빼면 됩니다. 한강시민위원회, 광장시민위원회 다 같은 내용인데 요. 우선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걸 빼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000 : 또 다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8조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시민위원회이니까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000 : 이것도 회의를 공개, 비공개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회의처리 결과도 공개, 비공개 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되어있습니다.

000 : 그 밑에 위반하면 해촉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네요.

000 : 이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위원회가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나요?

000 : 요즘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발언을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위원님들을 보호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정해 주시는 대로.

- 000 : 요즘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 000 : 결과만, 그러니까 참석한 위원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결과내용만.
- 000 : 우리가 000이 모든 회의는 공개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이 회의 자체는 비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건 나중에 다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은 나중에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한 줄 하든지 하고, 사실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해 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여기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논의된 것을 특정위원이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금 왜곡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요.
- 이것도 다른 위원회하고 봐서 이 문구를 좀, 너무 위원님들한테 크로스를 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순화하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회의결과는 공개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의 자체는 비공개하고.
- 000 : 회의결과는 공개하는 걸로.
- 000 : 우리 서울시 이번에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걸로, 이번에 000이 바뀌서 내려왔잖아요.
- 000 : 발언한 내용까지도,
- 000 : 그러니까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하되 결과는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 000 : 위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 000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000 : 어차피 정보공개원칙으로 가니까 그 위 문장에 보면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 이게 거의 다 해당이 되어 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지 아니하다고 해 놓고 나머지 줄에 있는 ‘징구한다.’까지 지워 버리면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게 되는 거고 공개하게 되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 000 : 결과라는 것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하는 거죠?
- 000 : 결정된 내용뿐 만이 아니라.

000 : 결과.

000 : 결과라는 것은 회의내용의 모든 것 또는 회의라는 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만 공개를 하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은 결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된다는가 그런 내용을 구분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000 : 결정된 내용만?

000 :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사실은 주장하는 과정에서의 찬반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에 특정부분은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000 : 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이지만 과정에 있는 것은 아직 일부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공개하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비공개로 둔다는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000 : 회의록, 속기록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여기가 특별하게,

000 :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록은 전부다 비공개 원칙이에요.

000 :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000 : 같은 내용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공개하는 걸로.

000 :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000이 어쨌든 시민의 시장을 표방하시면서 특히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우리 다 열어놓을 수 있으면 열어놓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령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발언한 내용을 아마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발언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것까지 다 밝히자고 했었는데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방식을 좀 준용해서 우리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앞설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과거식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권한이 적고 뭘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계천위원회에서 집중심의나 주된 결정은 아니지만 심의한 결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주변의 지가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연결될 소지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쪽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누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회의결과를 법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위원들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견제랄까요 아니면 입단속이랄까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회의결과를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르되 위원들에 대해서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내용과 분위기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이런 정도로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00 : 공개를 하지는 겁니까, 안하지는 겁니까?

000 : 회의록은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할 거고 당장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지금 당장 지난번 회의록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000 : 할 때마다 떠우죠.

000 : 그런 것처럼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영역들이면 다 공개를 하지만 어떤 것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규정상으로 애매한 게 있는데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떠나서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두고 또 위원은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진다든가.

000 : 그래도 그 말이 정리된 게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요.

000 : 그것도 있고요. 그 밑에는 비공개, 공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이 이것을 다른 이유로 흘리거나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뭔가 뒤 조항이, 비공개라는 표현보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0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바뀐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가 아니라 회의의 결과를. 그리고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공개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회의결과는 어찌되었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 자체도 기자들이 전부 보고 있었어요. 시민단체들이 다 와서 보고, 국회하고 같은 겁니다. 그대로 가서, 그러니까 앵바고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다들 위원님들 말씀이 그 관련된 일들이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어져서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위당이 시대흐름에 맞는 위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0 : 아마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참관하겠다고 하면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000 :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하겠다면 시민들의 참석이,

000 : 그럴 경우에 이 안전에 따라서 이 안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모든 회의는 다 공개할 수 있고.

000 : 지금 말씀은 회의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회의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 000 :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까지를 공개하는 것은 저도 아직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도를 빼지는 않았고 회의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단서를 달아주자는 거죠.
- 000 : 요는 회의를 공개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 데. 결과의 공개, 비공개.
- 000 : 아직 감을 잘못 잡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회의를 할지, 회의내용이라는 게.
- 000 :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000 : 의회는 속기록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한 내용 모두 공개할 수 있어야 맞죠.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비밀리에 갈 것은 일정기간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 그리고 바람직한 목표는 서울시민들이 잘되기 위함인데 그래서 저는 이 워딩 자체는 아까 회의결과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다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돼진 규정으로 다 흡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회의공개는 시민들이 원하면 돼야 하고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 000 :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8조는 사실 회의결과의 관리 거든요, 제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든가 이 정도로 하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5조에 회의소집 등이 사실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3항 정도를 뒀서 회의운영은 예를 들어서 그게 공개를 하든 비공개로 하든 아무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5조3항에 따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 그럼 이진 좀 내용을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8조에 제목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의목으로 변경해야 되겠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리모딩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회의에 대해서는 5조3항에 넣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00 : 그것은 오히려 회의소집보다 회의진행 6조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 000 : 그러면 6조에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회의는 공개, 비공개 어느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공개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 때문에. 어떻습니까?
- 000 : 비공개를 이 규정에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 문구에 비공개를 넣어서 이 사실 자체가 분명히 이 문건은 또 알려질 텐데 무슨 작당을 하려고 또 비공개로 하느냐, 대뜸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히 그에 대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000 : 회의결과로만 묶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은 조금 두고 보심이 어떨까?
- 000 : 그리고 8조2항에 있는 것으로 1항을 규정 위반했을 때 해촉 한다는 것도 괜히 자극하는 문구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도 해촉을 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촉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모양새만 더 우리 위원회 자체가 우습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8조는 아까 000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뒤집어서 한 문구만 딱 넣고 2항정도 없애는 것도, 괜히 이것 우리 잘하자고 운영세칙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 이 운영세칙 가지고 웃음거리 만들어줄 게 뭐가 있어요?
- 000 : 새로운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8조에 첫 번째 1항은 회의결과로 하고 2항은 삭제 하자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 000 : 8조가 그렇게 되면 회의결과를 공개하냐 비공개할 것이냐 문제뿐 이거든요.
- 000 : 아니, 지금 8조의 주제 자체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 000 :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관리가, 이 결과가 실질적으로 청계천 이후에 개선사업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의결과를 공개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만 남는 거죠, 뒤에 2항을 빼버리니까. 사실 통째로 빼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 000 : 그러면서 그것을 7조, 8조를 엮어서 8조를 7조3항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거든

요

000 :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000 : 또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아마 그게 가장 첨단안인 것 같으니까 지금 마지막 제안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8조는 삭제하고 7조3항을 신설해서 8조1항에 있는 내용, 특히 회의결과는 공개로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 바랍니다.

000 : 그 말까지만 들어가나요?

000 : 그 밑에도 다 들어가야 되죠.

000 : 다만 들어하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회의의 비공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까지만 만들어 가면 돼요.

000 : 관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으로 바꾸고요.

000 :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머지 안은 지우는 걸로.

그럼 7조의 회의록 등인데 이것이 회의결과 및 회의록 등 이런 쪽으로 바뀌어져야하지 않을까요?

000 : 회의록 다양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0 : 등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데 1조에 목적규정이, 목적규정하고 우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역할에 관한 규정하고 합쳐져 있어서 조금은 그 부분이 분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설치돼서 뭐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000 : 그게 ‘목적 등’ 했는데 1호, 2호, 3호로 넣었는데 1호는 목적이고 2호는 역할이고 3호는 구성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000 : 그래서 이걸 1조에 다 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000 : 그림 말씀처럼 2호, 3호를 제2조 역할 및 구성해서 2조로 2호, 3호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은데요.

000 : 1조는 목적으로 하고요.

000 : 2조는 역할 및 구성.

000 : 역할 및 구성운영 및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2조는 그렇게 신설해도 되겠습니까, 분리신설?

그렇게 된다면 역할이랄까 기능부분을 현재 지금 청계천위원회는 청계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문제 등에 대하여 이것을 청계천의 역사문화 그다음에 생태환경, 도시문제해서 항목을 달리해서 세 항목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예컨대 역사문화를 어떻게 한다, 생태문화환경을 어떻게 한다는 식의 상세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강위원회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분과위원회 구성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상세한 규정이 필요 없다면 그냥 2항과 3항을 별도로 빼서 2조로 묶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000 : 시민이 공감하는 청계천으로 재탄생한다는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라든지 생태환경 같은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위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하니까 그것이 어떤 합의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되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봐도 나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000 : 그러면 2조는 그런 식으로 분리신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칭에서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제도, 도시제도 같으면 중간에 점이 들어가야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제도’ 그렇다면 앞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내용이 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000 : 도시문제라고 한 것을 도시제도로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 000 : 분과명이 도시제도분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 000 : 여기 역할에서는 도시문제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도시제도로 하는 것을 ‘도시제도’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000 (000) : 2조4항.
- 000 : 그렇죠. 2조4항 소위원회.
- 000 : 우리가 2조 역할 및 구성에서 도시문제라고 되어있거든요.
- 000 : 그것도 그럼 도시제도로 바뀌야 되는 것 같은데요.
- 000 : 도시개선이라고도 되어있는데요. 2조4항에는 ‘생태환경분과, 도시제도개선분과’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칭을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 000 :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을 한다면 2조 신설하도록 되어있는 1항에 생태환경도시문제를 도시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2조로 된 게 3조가 되겠습니다. 3조 4항에 역사문화, 생태환경, 도시제도, 개선 빼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 그러면 세칙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된 것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죠?
- 000 : 그럼 제1조 구성 및 목적 등을 1조1호는 목적이고 2호로 되어있던 것은 역할, 3호로 되어있는 것은 구성, 이렇게 해서 1조를 3조까지 나누면 되겠죠?
- 000 : 예.
- 000 : 나머지 호수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 그러면 운영세칙안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 그다음 안건이 어떻게 되죠?
- 000 : 분과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 운영세칙에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고 되어있고요.

제안이유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배분과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서 역사문화분과, 생태환경분과, 도시제도분과 전문분야별로 논의토록 했고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리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론을 짓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배분안은 별지로 되어있고요. 역사문화분과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도시제도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에 안 중에서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했습니다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추가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옆에 별도로 놔뒀으니까 보시고 위원구성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000 : 이미 지난번에 대개 이야기를 된 것에 정리정돈인데 지난번 우리 위원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000하고 000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분과위원회 명칭도 좀 바꾸고 아울러 충원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분을 추가적으로 추천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위원장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올라왔습니다만 이 두 분이 공식적으로 추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된 까닭이 이 사람 저 사람 위원으로 하고 싶은 요구가 있어서 그걸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회의에는 추가 선임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장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냥 안으로 위원장을 추천해 뒀습니다.

000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복잡한 일이 많아서 분과위원장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000 위원님이 공동위원장이시지만 생태환경분과 쪽에서 전에도 일을 많이 하셨고 해서 같이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00 : 그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 000 : 공동위원장이 분과별로 한 분씩 다 계시네요.
- 000 : 분과위원장이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다 계시니까 다 분과 해서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 각 분과에 한 분씩 다 계시는데 감히 공동위원장님 밑에서 분과위원장이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공동위원장님이 한 분씩 다 하세요. 그게 공동위원장을 위원으로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역사분과위원장에 아예 행정부000이 공동위원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밑에 도시제도분과에도 000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또 분과위원장도 없네,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해야지 뭐가 돼지 분과위원장 만들어놓고 공동위원장님을 섬기면서 일이 되겠어요?
- 000 : 그때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입니다.
- 000 : 이름하야 이 위원회가 시민위원회여서 굉장히 수평적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위원장들도 위원으로,
- 000 : 우리가 그렇게 수평적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공동위원장님이 맡아서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우리가 수평적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역사분과에 000 분과위원장님께서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 000 : 아니요,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 000 : 공동위원장이 안 계시지만 여기 부000이 하시는 거로 하고 생태환경에 때 맞춰 우리 000 박사님이 사퇴하시면서 바로 위로 진급하시네, 000 위원장님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세 분 딱 말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한테도 수평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군에 간부화가 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인데.
- 000 : 사실은 그래야지 일이 될 것 같고요.

- 000 : 그럼 저한테는 뭘 시켜 주실 건가요?
(웃음소리)
- 000 : 한번 위원장단 회의를 했다고 아까 000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냥 같이 느낀 겁니다. 이게 위원장단 회의에,
- 000 : 공동위원장님은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다 빠지시든지 아니면 같이 계시면 공동위원장이 딱 세 분이니까, 사실은 또 오늘도 이렇게 서먹서먹하지만 우리가 두 분의 위원장을 모신다는 자체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한 분씩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000 : 고충이 이해가 되긴 하긴 하네요, 000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장단 회의에 한 분만 빠지면 두 분이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 000 : 그렇게 되고 위원회에서 과제를 위임해 주셔서 기초 논의를 좀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분과위원장들이 계시면 조금 더 내용 있는 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 위원장단 회의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규정에 없잖아요. 규정에 위원장단 회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 000 : 규정에는 없죠.
- 000 : 사실은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좀 협의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게 아니면 사실 분과위원회나 분과위원장이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거든요.
- 000 : 일종의 간사개념으로 원하시면,
- 000 : 그렇게 하시면 이 방법도 괜찮겠네요. 공동위원장이 같이 계시면서 분과위원장이라는 말보다는 부위원장을 한 분씩 일하기 편하신 분 한 분씩 두세요.
- 000 :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 000 :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파트를 하나 씩 맡으시고 그 밑에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해서 하나 씩 두시는 게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시게 하셔야지 전부 위원장, 위원장하면.

000 : 아마 그렇게 되면 운영세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분과위원회 구성명단에서는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말고 그냥 분과위원장을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공동위원장은 그냥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회의 때 어정쩡하게 선정돼서 사실 역할이 분명치 않은데 중요한 것은 가끔씩 이런 회의가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주재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우리 위원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분과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분과단위의 어떤 책임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동위원장이 그냥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위원장이 기능적, 역할적 책임까지도 다 맡으면 아마 뭔가 미스매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공동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과가 그만큼 위원장 중심으로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000 : 그런데 그게 좀 이중적이라서요. 지금 말씀대로 분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위원장단 회의가 생산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별 필요가 없고 위원마다 간사 한 사람씩을 두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필요할 경우 확대 위원장단 회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단 회의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석에서 : 박수 한번 칠까요?)

(일 동 박 수)

000 : 그럼 여러분의 의견이 다 그러시다면 우리 공동위원장님이 분과위원장을 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000 부000 안 나오신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웃음소리)

두 번째 안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은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하천관리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다음은 청계천의 복원과정에서 청계천복원 때도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 됐던 내용, 관리상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옛날 회의록 등을 발췌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000께서 다른 회의가 중복되었었는데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계천시민위원회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또 여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논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복원당시에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이 됐고요. 2002년 9월 18일에 발족된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하고 각 분과위원회 별해서 총 115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전체 회의는 총 9회하고 본위원회 총 4회 그리고 기획조정회의 총 30회 정도 실시했고요. 전문분야별로 분과 회의는 6개 분과에서 총 7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분과 회의가 16회, 자연환경분과가 11회, 건설안전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시민의견분과 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분과에 대한 시민위원회 구성인데요. 이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됐고 총 16회 정도의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역사문화분과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청계천은 도시 하부구조로서의 역사유물이므로 청계천 자체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역사문화유적 복원에서 석축은 영조 때를 기본으로 하고 다리는 원형복원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여건을 고려조정하고 교량은 역사성을 살려복원하되 디자인은 설계자의 몫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교량의 아이디어 국제현상 공모 시 역사문화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현장설명 시 자료마련해서 설명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계천복원은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청계천로와 고가도로는 안전문제로 철거돼야 하나 복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있

있고요.

또 역사문화분야는 교통문제, 자연환경과 상충되고 있으며 청계천복원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청계천복원사업은 역사문화복원사업이므로 역사문화분과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과위는 해체되거나 재구성돼야 한다, 또 복원의 시급성을 인정하더라도 추후 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역사문화유적의 원형, 원위치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나 교통과 홍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원형, 원위치 복원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광고의 경우는 상류 쪽이나 박물관 등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역사문화유적의 개개단위로 검토되기보다는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특히 4대문 안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광고복원은 교통과 홍수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우므로 해체 후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되 원형복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또 수표교 복원은 하천단면 도로폭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실현이 어려우므로 현 장충단 공원에 그대로 두되 수표교 인근에 설치하는 교량에 수표교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난간 등을 수표교 형태로 재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수표교는 원위치에 이전 복원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원형부재의 사용은 문화재위원회 판단에 따르고 광고는 원위치에 복원하고 남대문로를 4차선으로 축소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검토하자.

또 역사복원의 핵심인 광고와 수표교의 원위치 복원이 하천의 구조개선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합동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역사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한 원형복원원칙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건의한다. 단, 원형복원과정에서 교통장애가 심각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세한 위치조정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논의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심의결과

유물산포지역, 유구잔존가능성이 높은 지역, 퇴적층 양호한지역등을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정비복원 차원의 계획수립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굴조사입니다. 시굴조사는 조사지역이 옛다리 터 및 퇴적층 양호지역입니다. 조사기관이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유구가 확인된 6개소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발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광고, 수표교지, 하랑교지, 효경교지, 오간수문지, 호안석축에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광고와 수표교지에서 조사결과 총 467m의 양안석축과 길이 등을 조사한바 있고 교각과 귀틀석 등을 다리 기초라든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원 및 보존을 위한 각종 회의를 실시해서 문화재전문가자문회의를 3번 정도했고 시굴조사지도위원회 회의 3회, 발굴조사위원회 회의 4회 정도했고요. 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를 9회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 7회, 복원관련사적분과 소위원회를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이 문화재복원방안 등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또 해체하여 이전된 석재들은 현장에 복원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라, 또 청계천의 변화모습과 복개된 모습 이번 복원공사로 정비되는 모습 등을 제작하여 후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라. 그래서 청계천문화관에 설치해서 지금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의 복원입니다. 광고는 이전복원인데 상류부 155m 현재지점에 광고 부지가 복원되어있는 상태고요. 수표교는 당초 2010년까지 복원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아직 미복원됐고요. 유사형태를 교량이 현재 목조돼서 만들어서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 20m 지점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오간수문지는 서울성곽복원계획과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유물은 중량물재생센터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광고복원은 이전복원 했는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종로구 서린동에 원위치보다 상류 155m 지점에

설치가 됐습니다. 복원비용이 59억 원 들여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표교의 복원은 유사형태의 교량을 위해서 지금 목조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고 현재 기존의 수표교는 장충단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표교 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원위치복원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석재손상이 예상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미결정으로 유사형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기존지점에서 20m 하류지점에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분과 시민위원회 구성입니다. 자연환경분과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 11번의 회의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자연환경분과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서 발췌한내용입니다. 환경 분야는 초기 컨셉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용역사, 본부 등과 정보교환이 원활하여 야하고 생태네트워크구상은 청계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전체에서 보아야 된다는 점.

청계천복원 후 유지용수 사용은 복원취지에 맞게 상류 발원지 수원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할 경우엔 한강수, 지하수, 하수처리수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러나 북한산, 인왕산등은 바위산으로 토심이 얇아 원천수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유지용수는 한강원수를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지하수, 중랑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수 사용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원수를 유지원수로 사용할 경우 가공이나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미사리 경기장처럼 무료사용검토, 지하철지하수 사용은 기름 등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계천 초기 강우 시 오염도 수준 검토에서 조경계획은 공간구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중수도는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청계천유지용수 사용은 어렵다. 유속은 치어의 생존, 산란과 직결되므로 초당 25cm~5cm로 해서 산란 등에 지장을 줄 것이다. 복원 후 하상의 토사유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연관찰로든지 친환경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역

사성, 지역성 고려한 식생 또는 홍수와 침수를 예방하는 공법 등 공학적 접근이 필요함. 악취에 대한 복원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또 하천단면의 경우 통수능력에 치중하여 하천이 깊은 반면 물이 흐르는 하천 폭이 좁고 수심이 30cm로 얇게 되어있으므로 하천 깊이와 수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하천환경평가 시 생태계 조사를 세밀히 하고 하류지역생물상 조사.

그래서 서울시 복원본부 조치사항은 법적,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타당한 사항은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치를 해서 현재 복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보도 건수가 총 1,435건이 나와 있는데 주요보도의 비중은 당초에 역사, 문화, 환경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826건, 2004년에 388건, 2005년도에 521건으로 해서 2003년 착공 전에는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 및 상인관련 사항 주로 보도의 내용이고요, 2004년에는 발굴문화재복원관련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했고 2005년에는 문화관련 사항이 주로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 우호도별 보도 빈도를 보면 2004년도에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점차로 2005년 준공됨에 따라서 찬성 쪽으로 우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가운데 문제점 관련한 것은 일일 1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청계고가도로 폐쇄 시에 도심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보도 내용의 주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중앙차로제, 셔틀버스운영, 버스노선조정, 지하철연장운행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청계천 패션의류연합회 등청계천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은 청계고가폐쇄에 따른 영업 손실과 생존권 위협 등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지동에 가든파이버를 지었고 또 동대문운동장에 노점설치 등을 대안제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경실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및 100인 청계천 복원작공의 연기를 주장했고 청계천 복원은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생태문화역사복원의 의미를 살려서 추진한다. 또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시민합의필요, 청계천 주변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마련과 착공 시기는 시민합의 이후로 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해서 청계고가 도로의 붕괴위험 등으로 착공은 불가피해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고증 없는 청계천복원을 반대한다. 시민위원회 역사분과위원회장은 광고와 수표교를 원위치, 원형복원 결의문 채택주장을 한바있고요, 또 청계천 옛 다리 9개 및 석축 복원 주장하고 청계천의 역사성을 회복하려면 광고와 수표교 복원이 관건이나 시에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강행 시 시민위원회 전원 사퇴 검토를 주장해서 시에서는 홍수단면 확보, 상인 및 교통대책 등으로 원형복원의 어려움을 표명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발표내용은 청계천복원공사와 아울러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해서 이후 생태공원유지를 추진했고요 백운동천, 중학천 상류부부터 태평로 청계천 복원시점까지 U자형 관을 만들어 계곡 원수와 빗물이 흐르도록 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형태는 그 조사가 ...생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섬진강 수계에서 서식하는 ‘갈겨니’가 어떻게 청계천에서 발견됐느냐 이진 인위적인 방류가 아니냐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줄납자루, 가시납지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되었다하는데 청계천에는 민물조개가 살지 않아서 인위적인 방류다. 또 시에서는 2006년도 청계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슬기를 30만 마리 방류하였는데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다슬기가 없다. 이는 청계천의 오염과 녹조류로 먹이가 없어서라는 내용이고요, 산천군에서 다슬기를 방류했는데 그쪽 다슬기하고 여기 사는 다슬기하고 좀 다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콘크리트로 둘러쳐진 하천바닥 수서곤충이 먹이사슬이 끊어진 청계천은 하나의 어항이지 민물고기가 서식할 공간이 못되는데 새로운 고유어종이 출현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기만행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유지관리기관 교육 및 관상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9종의 225마리 또 2차로 360마리, 또 3차로 220마리를 구매했는데 이걸 밑에 생태 학생들이 관상용으로 볼 수 있도록 어항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넣기 위해서 샀는데 구매한 것이 마치 청계천에 풀기 위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하천바닥은 친환경방수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벤토나이트에 의해서 바닥을 댔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건 아니고 우선 입구부분에 대한 급류부분은 돌로 해서 바닥을 포장하였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의 문제가 청계천의 수질이 악화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청계천 하류를 횡단하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오니 등이 가라앉다보니까 봄이 되면 이것이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1,350미터가 3련으로 해서 막고 있는 상태이고 하류 측 차집관로에 의해서 2군데에서 물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고 물이 올라오는 오니 이런 것들이 찌꺼기로 끼어 있다가 최근에 그것이 다시 부패가 돼서 떠오릅니다. ...떠오르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하는데 아직 못하고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차집관로 이설할 때 약 40억 정도로 사업비를 보고 있고 또 차집관로 횡단구간단면개량은 30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청계천 하류부의 수질이 좋아질 겁니다.

다음은 청계천에 진출로를 만들어 달라,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벽면이 제한되어있다 보니까 진출로가 계획적으로 해 댔는데 지금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진출입이라든지 접근성 차원에서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고 각 구청에서 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의 수질관련 문제입니다. 청계천의 동일한 수질관리는 BOD3이하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수질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 우수가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5분에 3미터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 12미터정도 비가 오면 수문이 열어서 오수가 청계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역류 등이 있어서 녹조가 끼고 BOD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정릉천 등 청계천의 지천에서 기준치 이하의 하천수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청계천에 공급수는 지금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만 실제 하천은 상당히 오염되어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추진사항이 구간별 수질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청계천수질관리방안학술용역 시행한바 있고 5월에 청계천 시민위원회 개최 시 학술용역 중간 보고 드렸고요. 또 수문 물막이판 설치로 초기월류수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문이 자주 열리는 것을 자석 붙여서 수문을 늦게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자주 열리는 횟수를 상당히 줄였고 또 지속적인 수질측정과 순찰로 오염원 유입 사전차단하고 또 녹조가 끼고 문제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상청소를 실시해서 녹조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청계천에 제시된 문제, 여러 가지 발췌한 게 있는데요. 나중에 추가적인 발췌는 다음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통 박 수)

000 :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관리하는 시의 입장에서 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실제 복원과정이라는 게 복원 이후에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마도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고 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 하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개 주제별 발제가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이러기보다는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좀 확인이 더 되어야 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역사문화분과 회의 결과보고 범위를 하셨을 때 마지막 회의일자가 2003년 5월 1일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2004년 9월 17일인가 위원들이 사퇴를 했고요. 그때까지 1년 반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 추가 회의가 없었습니까?

000 : 그때까지 회의록을 발췌한 내용인데 추가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000 : 알겠습니다.

000 : 또 다른 말씀?

아마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계속 참고해야 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부터 잘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늘 퀘스천마크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는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휴식을 한 5분 정도 취하고 토론하면서 주제발제를 들으면서 좀 더 심층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000 : 2부는 역사문화 유산복원과 청계천인데요. 이걸 000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생태환경이 전제된 청계천, 이걸 000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전체 회의 종합정리는 000 부000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산복원과 청계천은 000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고 000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000 : 1부 사회를 제가 했습니다만 또 2부까지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부 첫 번째 발제를 000 위원님께서 역사부분에 대한 발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한 30분 정도 늦었기 때문에 발제를 20분하기로 했습니다만 15분에서 한

20분 사이로 줄여주시고 지정 토론은 50분되어 있습니다만 한 30분 정도 에누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박사님은 역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 다만 특히 역사 중에서도 우리 도시역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서울시립대, 서울대학연구소에 오래 계시면서 서울의 특히 도시계획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을 많이 냈는데 사실 우리 도시역사분야에서는 아주 참조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그동안 전 박사께서 많이 내주셨습니다.

000 : 예, 000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계천 처음 복원할 때 시민위원회에서 역사분과위원회가 왜 2003년 5월까지밖에 없느냐고 여쭙봤었는데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의견이 통일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난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굳이 발제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거의 그대로 인데요. 조금 그간 복원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자체가 복원이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하는 이야기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연구자들은 다들 어느 시점의 어떤 형태, 어떤 기능으로 되돌릴 것이냐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복원구상이 나왔을 때 모두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자연형 하천이었는데 이게 좀 배치된다고 하면서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와 자연은 잘 안 맞는다, 원래 배치되는 이 두 개념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째로 하지는 못하겠다고 판단을 했고 동의를 했던 것이 현재 청계천이 구상되었을 때 청계천안이 나왔을 때 결국은 구간을 분할해서 광고에서 광장시장 앞까지는 역사복원의 구간, 광장시장부터 동대문시장 지나서 까지는 문화활용 구

간, 그 나머지 하류 쪽으로는 자연복원 구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분할을 했는데 뭐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까지는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청계천 홈페이지에서 그냥 역사, 문화, 자연이라는 세 가지 구간분할의 애초 계획은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데 청계천 설명하는 구간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1구역, 2구역해서 청계광장부터 오간수교까지 도성 안 구간과 그 도성 밖으로 나누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계획에서 청계광장에서 광장시장까지가 역사복원 구간으로 되어있었던 건데 지금은 역사복원 구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현재 청계천홍보자료 내에서는 소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계천이라는 게 개천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을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은 처음부터 자연의 하천은 아니었고 조선왕조가 개천되기 전까지는 자연하천이었습니다만 서울이 도시가 된 이후 사람이 살게 되면서부터 자연하천에서 개천으로 바뀌는 거죠.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인공을 가했다는 그런 얘기이니까 1406년 한해에 5만 2,800명 동원되어서 나무로 건축을 하고 또 일부는 장위동에서 종로6가까지 경복궁 동문과 창덕궁 앞에는 전부 석축으로 쌓았다. ... 다리도 모두 돌을 사용했다. 이미 태종 때부터 삼단구간이 석축과 석교로 구성된 인공 또는 인위적으로 개척된 하천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까지 분류와 축척을 해서 공사를 지속했고요. 성종 때 이르러서는 석축이 되지 않은 구간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천 변에 버드나무를 쪽 심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버드나무가 쪽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양을 유경이라고 하는 것 같이 당시는 서울도 유경이라고 부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개천가 버드나무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용품으로서 키, 광주리, 고리 짝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천 자체가 하나의 산업지대처럼, 산업 원료 공급지처럼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사상은 생태적 자산이 풍부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천이 놓여 있었던 모습이고 그 주변에 지금 이렇게 태종 때 석

축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간들이 대략 이 정도 구간이 석축으로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천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세종 때 굉장히 유명한 논란이 있었죠. 개천에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명당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에 대해서 어효첨이라는 사람이 도읍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걸 개천을 오히려 도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천을 하수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세종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서 개천의 중심이 되는 하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개천은 도시자체의 경계 또는 도시자체의 좌표구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와 수표교를 중촌이라고 하고 광통교 이상을 우대, 효교동 이하를 아래대라 한다고 도시구역의 경계로, 그래서 대광교 서변, 소광교 동변, 수표교 부천변 위에 첫 번째 고개 계곡 그리고 철물교 아래골의 골목과 같이 조선말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개천과 관련된 지명들이 일종에 하나의 주소, 당시에 주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 찾기 또는 집 찾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표로 이용이 됐고, 그만큼 개천은 시민생활과 여러 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 말기에 북촌, 남촌, 동촌, 서촌, 중촌, 우대, 아랫대라고 구역인데 대개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위치가 관습적으로 부르는 위치들이 지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으로서는 개천가에 심어놨던 버드나무를 활용한 목재가공업이 있었고요. 개천하류 쪽에 지금의 왕십리, 장한평 그리고 뚝섬지대, 중랑천까지 이르는 전체 지역은 말목장으로서 군용마을, 관용마을 그런 곳으로 이름이 됐었습니다.

버드나무 이야기라든지 그 일대에 버드나무를 가공해서 가구라든가 석교 두레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금도 남아있죠. 고리백정이라고 고리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천하류 쪽에 말목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말과 관련된 소, 말을 도축하는 도축백정이었고 개천에서

나는 버드나무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들을 고리백정이라고, 즉 같은 그룹 내에서 기류백정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고리백정이라고도 하고.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서민 유락이 성행한곳이 수포교 부근이었다, 종로 앞을 동경의 긴자라고 한다면 청계천 일대는 ...어렵다. 향락지 비에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청계천 일대에서 가장 성대했던 것이 대보름 전날 일반인들이 다리밟기였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개천이 좀 더 접근 가능한, 인지 가능한 대상으로 현재시점에서 확인된 것이 1750년대부터 1770년대까지 20여 년간 이 기간 동안에 잘 아시는 영조 때에 대표적인 준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752년에 준천이 건립되고 7년 동안 여론조사 끝에 1759년에 준천에 착수하고 처음에 양안에 목재를 설치하고 다시 제방에 버드나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이 죽고 타버렸던 모양입니다. 버드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20만 명을 동원해서 75일간 했고요. 그리고 야간에 토사가 무너지는 것이 그치지 않자 1773년에 들어서 양안을 전부 석축으로 개축을 합니다. 그게 경진지평라고 해서 광고에 글씨가 남아있는 그때의 경진지평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상석을 묻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준설을 하게 될 때까지 기준지점을 하천바닥에 표시를 해 놨던 거죠.

이 상석에 대해서 특히 상축보다도 곳곳에 상석이 침설되어있었고 각 지류까지 ... 마찬가지로인 1918년에 준설을 담당했던 경성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 조선인들의 하천관리기술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준천에 대한 당대 또는 후대의 국가를 보자면 영조는 자기가 임금이 된지 50년 동안에 일컬을 만한 사업은 별로 없으나 양역과 준천은 사업이라고 조금 이를 만하다. 그 뒤시기에 일본인들은 양안에 석축을 쌓아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였으니 비로소 왕성의 체모를 갖추었다.

석축이 완공되자 영조는 당시 손자였던 정조를 데리고 광통교 위에서 서서 새로 쌓은 제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 왕세손을 돌아보면 뜻이 있으면 이는 반드시

시 이루어진다. 물론 하고 자하는 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는 했으니 하나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할 만큼 당시 석축공사는 서울의 기본적인 경관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나중에 1704년도에 일본 오토야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경성의 대토목사업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것이 성벽축조, 두 번째가 개울 ...경복궁, 세 번째가 개천 석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벽축조도 공성 축조도 영웅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후세에 이르러서고 서면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계천 준설공사는 조선시대 준공의 명조인 영조에 의해서 대신 설립되어 경성 도민의 생활의 기여한바가 크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성벽이나 공성처럼 후세에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것은 실로 나라 건축상에 이은 대공사였던 것이다.

관리는 그 이후에 영조 때 준천 이후에 지금도 경진지평이니 계사대주니 하는 식의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만 상석과 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2년, 3년에 2배씩 준천을 했습니다.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에 가있는 수표는 사실은 세종 때 설치했던 수표와는 다른 것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당시 유일하게 서울시민들이 광역이라고 해서 주민세라는 게 없었어요. 광역이라는 게 따로 있었지만 다만 서울시민들이 내는 유일한 부담이 조감전이라고 해서 청계천 준설 비용만 냈습니다.

1923년에 하폭을 일부 구간 확장하면서 일부 구간의 석축을 일본식 석축을 쌓는 것이 우리 조선식은 수평으로 쌓아나가는데 일본식은 마른모 형태로 쌓아나가는 것이어서 일부 구간이 마른모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당 구간에서 원래 석재가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인 경관을 보자면 바로 천변도로가 있고 천변도로 옆에 집들이 들어서있고 바로 석축이 있고 그다음에 하산이 있고 석축위에서 교량이 있는 이런 위성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경관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교량이 있고.

멀리서 보는 수표교 주변에서 빨래하고 또 아이들은 떡 감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석축 위로 사람들이 다니고 교량이 보이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생활공간, 하류 쪽에서 바닥경관입니다. 곳곳에 아예 하상으로 내려오는 널빤지가 널려있고 쓰레기도 버려져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제방도로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상류 쪽입니다. 상류 쪽에서는 바로 집 뒤에 집에서 곳곳에 다리가 있고 바로 집에서 다리넘어 옆으로 제방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표교는 지금 일단 청계천의 역사문화복원에 대해서 이미 2002년에 당시 구성됐던 시민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청계천의 역사 복원시점은 석축이 준공된 1773년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당시 주장이었구요. 대상은 개천과 개천시설물 당시에는 주로 석축과 교량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석축, 상석교량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제방도로와 천변건축물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로 많이 바꿨으니까. 다만 개천되었던 하천시설물은 성곽문루와 더불어서 서울의 경관을 규정하는 기본구성요소였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같은 문루는 그렇게 전액 교량에 해당하고 성곽석축에 해당 정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또는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였다고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성벽과 성문에서의 이렇게 지금 현재 관인문입니다만 성벽과 성곽이 잘려나간 채 성문만 있는, 간간히 보이죠. 현재 서울시에서 성곽 한양도성복원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은 가급적이면 절단되어있는 성곽들을 다시 복원해서 옛 한양도성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개천에서 역사복원문루도 석축과 교량의 복원이라고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성곽모습이고 현재 복원된 그림입니다. 물론 저것은 조선시대 성곽의 모습이고 이는 현재 복원된 모습입니다. 모습은 많이 다르고 너무 기계적이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렇게 복원해 놓은 것이.

저것이 유물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성곽을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교량을 실제로 예전에 석축 높이와 하상높이와 관련해서 역사문화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아까 앞서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회의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2003년, 2004년 회의 때. 결국 풍수단면의 확보문제입니다. 집중호우 시 또는 홍수 시에 교량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겨서 교량의 훼손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청계천 수위관리문제와 함께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돼야 될 것은 재난문제이니까 안전문제이니까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이런 교량과 석축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할 경우 거의 물에 교량이 완전히 잠기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거의 교량이 물에 실려 나갈 정도로, 1950년대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개천에 있었던 교량, 석축, 상석, 천변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은 서울성곽과 더불어 서울도심부의 역사경관을 규정한 기본요소였다.는 점에서 접근을 해 봤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성곽복원과 같은 차원에서 청계천의 역사경관 복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내사산이 개천이라면 성곽은 석축에 해당하고 문루는 교량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개천 주변에 있었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개천은 4대 문안 역사문화도시의 성격 또는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심적 역사경관 요소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량은 가장 큰 문제인데 교량복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계천 복원할 당시에 청계천 하상이 지금처럼 깊어질지 결국은 이 문제가 홍수문제에 대한 여론 때문에 100년 내 기준으로 넘어서서 200년 내 기준으로 삼았다고, 워낙 깊어졌습니다. 지상부터. 그래서 장애인 접근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접근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높은 담장 안에서 둘러싸여 있는 감옥 안에서 산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

도로 너무 깊어졌는데 지금 현재 지상과 하상을 생각해서 교량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높은 다리를 만들면 자칫하다간 일제시대 다리처럼 ...수신용으로 이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서, 그래서 교량은 지상보다 석축과 연결된 하천시설물로 인식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광고 오간수교사이를 애초 계획대로 확장해서 역사경관복원구간으로 지정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천시설물 상석, 석축, 교량, 제방도로, 제방주변건축물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서울성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량물재생센터로 이름이 바꿨더라고요. 중량물재생센터에 방치된 원석재를 이용하고 그리고 교량을 포함한 하천시설은 도로가 아니라 하상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복원가능성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게 현재 중량물재생센터에 보관 중인 개천에서 나왔던 석재유물들입니다.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고서 역사문화복원을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000 :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평소에 늘 연구를 해 오셨고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못 다한 이야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짧은 시간동안 청계천 역사에 대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견 주시고 특히 마지막 앞으로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우리 역사분과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고 질의할 것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000 : 그때 수표교, 복원하는 게 결국은 우수, 홍수통제가 관계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000 : 그건 한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000 :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결정한 바로는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부재 자체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서 옮겼을 때 상당히 본 재료에 훼손이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청장님으로 하시던 유홍준 청장님도 제가 직접 현장에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건설관리기술원인가 그쪽에서도 과학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내린 결론은 첫째로 부재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원재료는 그냥 현재 있는 장충당 공원에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한 가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부000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표교가 과거에도 한번 을축년 대홍수 때 일부 난간이 훼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빗물에 떠내려가서 즉 우리나라 전통다리가 횡압에 약하다는 말씀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구조학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가 왔을 때 과거보다 지금 더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변에 포장이 돼서.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없다, 두 가지 주된 이유거든요.

000 : 기존 수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대로 옮기면 한 38%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고 현장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수표교 폭이 안 맞는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안 맞고 추가로 땅을 확보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문제가 있고, 한 180㎡를 키워서 선형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000 : 문화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문화재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과 그 복원 원위치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복원시켰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측 쪽을 더 현재 있는 건물을 사서 물길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돌렸을 경우에는 수량은 가능하 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재적인 측면에 홍수 났을 때 칠갑에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문화재 위원님들은 그런 파트였고, 공학적인 기술자분들께서는 그 시기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학적이거나 우리 서울시 입장이었고 문화재청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000 : 마지막에 유물발굴된 것은 중랑하수처리장에 보관하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사분과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기준에 돌로 된 것이 지금 한 10여년 정도 된 상태에서 바깥에 천막도 없는 상태에서 야지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있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가보면 그 돌 자체가 부스러지고 있어요. 언젠가 활용을 한다면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깊게 다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부스러져서 형태도 사라질 것 같아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000 :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쪽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돌 자체는 바람을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 자체가 비바람 맞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다 비바람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량이라는 것은 장충단공원에 있는 것도 비는 맞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돌길이 층층이 쌓이다보니까 위에 상압에 의해서 밑에 부분이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땅에 묻혀있지 않고 노출돼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 문화재 관계자분들의 말씀인데 좌우지간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이걸 펼쳐놓는 게, 복안이라도 펼쳐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 이게 가기 전까지. 그러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도 임시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또는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정한 장소로 옮겨서 평평한 바닥에 땅에 일부 묻는다던가 원래 그 많은 부재가 오간수문 속에서 나온 부재입니다. 오간수문 속에서 부재 자체가 기초였기 때문에 원래 땅바닥에 잠겨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닥에 묻는 것이 걱정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기 때문 저희가 일부로 저희 내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민합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000 : 아마 이게 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데 앞으로 역사분과에서 우리 전 박사님이 많은 기초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 복원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역사의 측면에서 복원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초기에 복원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회가 역사 쪽에 복원과 관련된 과제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원형에 대한 이해도 잘해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 그 최대치를 어떻게 복원시켜야 낼 건가, 그러려면 역사의 원형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를 떼면 현재 이 구조화된 청계천 시설물을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가능한지 또 안 될 수 있는지 뭐 만약 지금 상태에서 구조물이 상당히 힘들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러면 복원할 수 있는 것이 2005년 당시에 준공할 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000 : 본위원회에서 해야 할 게, 사실은 저도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전문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계천은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구조물로서의 교량을 우리가 복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박물관에 교량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할 건지 그것을 우선 여기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시민위원회에서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끼리 따로 놓고 생태는 생태 따로 놓고 위원들끼리 교류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교량을 그 당시에 원형 그 자리, 그 위치에 똑같은 교량을 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활용은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하중이 ... 전 구인 하중이었을 때 지금 교각 자체가 길어야 3m, 4m 되는 교각을 둘 하나 없 어놓고 했던 교량인데 그것을 과연 이 광고 서울시 중심에 갖다놓으면 과연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구경을 문화재로 놓고 '아, 저기 옛날에 우리 교량이었구나.' 라는 상징성으로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중랑천에 석재가 많이 보관되어있는 자체를, 석재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이것을 갖다놓고 특히 교량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이런 교량을 하나라도 놓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즐거움 또는 유물
하고의 가치를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석재만 가지고 원형복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 어느 곳에 넣고 청계천에서 이런 교량이 있었다고 해서 어
느 일정한 곳에 박물관식으로 만들어 놓을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할 건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그다음에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무조건 복원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
네요.

000 :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비교를 했던 거예요. 서울사대머리가 있
고 남대문, 동대문 빼고는 다 복원전문이죠, 대개. 사용하는 문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리고 성곽도 아무도 사용 안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복원함으로써 서울의
역사경관을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의 역사문화복원
구간이라고 우리가 일단 지정을 한다면 그 교량을 사용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할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뒤의 문제이고요.

그것보다 이것이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경관 이것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성
과 개천의 이른바 석조건축물들을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은
드렸던 거고요.

000 : 그런데 석축하고 이걸 같이하다보면 성벽, 석축, 개천의 도성축하고 교량하고를,
그렇다면 청계천에 위치는 어쨌든 소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000 : 그렇죠.

000 : 그러면 옛날 보였던 경관하고 지금의 경관하고도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원료로 하려면 석축교량을 났을 때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석축자체의 교량은 자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평하중에 대해서 그 마찰력 말고는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 그러려면 거기에 공을 박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선 큰 틀에서 윤곽을 잡아주셔야, 기술적인 것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세부적인 것

까지 나가다 보면 진도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000 : 오늘 회의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안만 드렸던 거고요. 이 문제는 우선순위로 보자면 역사문화 복원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일단 안전이 우선순위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안전한 다음에 역사문화 복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 도시내부의 경관이나 구조를 놓고 나서, 전제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4대 문안 역사문화도시 기본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진행 중인데 현재 역사 경관을 보존하고 수복하고 회복하려고 하면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개천이 역사 경관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와 관계없이 바라본 것 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경관으로서 후차적으로 든 아니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역사경관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해 놓고 나서 주변적인 것들을 사업을 하면 좀 다른 형태의 도시 미래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에서 큰 틀에서 먼저 문제를 던져놓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노상박물관으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옛날 청계천 모습으로 그대로 할 건지 뒤에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상박물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 :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하나 얻었다는 게 지금 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원에서 중요한 맥락이랄까 이런 것을 역사경관 복원, 일종에 총체적인 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청계천의 복원이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맥락이라는 것. 그다음에 000 위원님께서도 기술적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해 주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문제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또 다른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전문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되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전 박사께서 복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원에 관해서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복원 각 분야에서. 저도 작년에 청계천복원에 ...정착이라는 용어의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결국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청계천이 어떠한 도시 맥락이 있느냐에 따라서 청계천의 자연과 주변에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청계천에 대한 재해석이 가해지고 그것이 결국 청계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청계천할 때 역사 딱, 생태 딱, 도시계획 딱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좀 다 떼어놓고 보면 가령 지금 기술적으로 수표교를 원 위치 시키는 게 어렵다, 그게 일단은 교통량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200년 홍수 빈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000 : 무슨 말씀이신지, 기술적으로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현대고 뭐고 다 되는데 그것을 경관 길이가 2m, 3m를 청계천에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000 : 그래서 제가 그 관점과 역사관점을 섞어서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실 위원회 밖에서 논의가 된 게 있습니다. 수표교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남대문에서 올라온 남대문로 그 자체 도로 폭을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차량, 서울에서 당시 보면 남대문에서 도심으로 굉장히 길 이었고 아까 성곽이나 이런 들은 입체적으로 총체적인 경관 복원하는 그런 것에 하나로 하자고 한다면 저는 특히 청계천의 경우에는 청계천 하천의 선의 복원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접지역의 주요 지역까지도 동시에 중대한 것을 복원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저는 수표교의 일종의 아주 원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원상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줄이고 지금 설치될 구간에 구조물을 조금 변경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홍수 처리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남대문에서 올라오는 그 길도 좀 줄여서, 보행로 중심 물론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를 떼면 지금 와서 어렵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합의를 얼마큼 만들어 내냐의 문제이고 청계천복원이 문제라기보다 또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도시계획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시로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준이라든가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000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전 교수님 노상박물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계천에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또 역사라는 게 누군가가 인도해서 설명 해주지 않으면 왕래하는 시민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없다. 수표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역사자원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표교에 다리에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위에라도,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디자인되고 역사적으로 검토되고 해서 그런 검토의 기회의 용역, 그 과정을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으로 삼고 그런 기회가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한 150년 된 교량을 그 당시에 그 교량자체를 지금 기술로 하다 보니까 신공법이 들어가지만, 내부는 새로운 공법이지만 모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존건축 하시는 선생님은 디자인 쪽을 하고 저는 구조개선을 해서, 들어서 해서 베를린에 지금도 가시면 통일되고 나서 다시 엮어놓은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그 교량을 제가 같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수표교 자체를 옛날에 경간장, 그러니까 교량의 길이를 말합니다. 전공용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량에 지간 길이를 2m, 3m로 해서는 절대 통수단면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000께서는 그 수표교라는 다리를 걸으면서 옛날의 그 모양을 그대로, 거기에 있던 이 석재자체도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간 길이는 빼고 그 교량은 횡단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다리,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람이 걸었고 말이 다니던 거리지, 지금의 덤프트럭이 다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따로 놔서 현실적으로 또 도로의 땅은 구축하되 사람이 걸으면서 ‘아, 내가 이 수표교를 걷고 있구나, 또 무슨 교를 걷고 있구나.’ 그래 사실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공법과 접목을 시켜서 사실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저도 지금 교량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철교도 문화재로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문화재로 딱 지정을 해서 이게 옛날에 그 모습에 그 교량이다, 문화재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그것을 옛날 모양 그대로 갖다가, 만약에 청계천 옆에 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우리가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딱 주신다면 그것에 맞게끔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000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100%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수단면을 생태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만 가령 왜 그렇게 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 박사께서는 200년 빈도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000 : 깊어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홍수빈도의 200년도 200년이었지만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횡단교량이 형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의 형하고아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량의 폭이 길어진 만큼 이게 또 깊어져야만 지금 현행 교량을 놓으려면 설계기준에 다 또 만족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100년으로 할 거냐 200년으로 할 거냐는 그 홍수빈도에 따라서 교량하고의 상관관계를 맞추다보면 교량을 놓으려면 30m 교각 지간장이 있고 20m짜리가 있으면 30m가 가려면 우선 차가 다니기 위해서 형하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형하고를 맞추려다보니 각도가 맞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000 : 이야기가 자꾸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그때 우리 김 박사하고 대안을 만들 때는 200년 빈도는 과다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여러 가지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시계획도로로 갖춘다면 그 정도 규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표교를 아주 과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상당할 정도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000 : 그렇죠.

000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000 :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이것을 100년 빈도냐, 200년 빈도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 자체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0년 빈도로 했는데 내일 비가 내려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다 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떠내려가면 우리가 책임을 못 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현행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000 : 역사를 복원하는 관점에 있어서 시간은 흘렀잖아요.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시각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역사는 꼭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는 지금도 역시 이 시점도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복원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시점에 맞는 해석의 방법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계획되었느냐 같은 큰 기본 계획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복원에는 형태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오늘에서야 저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저는 디자이너로서 청계천이 새롭게 시민들에게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디자이너들은 그런 의아스러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왜 다리가 저럴까?’ 이런 얘기들을 대개 많이 해요. 분명히 역사

적인 관점에서 많이 고려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교량이나 이런 것에 관계해서 어떻게 원형을 어땠고 다시 복원할 때 이런 계획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디자인은 여기 보니까,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 보게 되면 교량은 역사성을 살려 복원하되 디자인은 설계된 몫으로 한다는 과정에서 아마 ‘역사성에 맞춰 복원하되’라는 전제가 살짝 빠지면서 디자이너의 몫으로 맡긴다고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몇 개 다리들이 전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리들이 눈에 띄면서 대개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다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 맞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또 다리가 여러 개 되다보니까 또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 뭘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된 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치지만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제가 주어졌는지 그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되거나 복원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의 몫이 더 해진다는 그 관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언밸런스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작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체적인 기본계획이 관점에 있어서 또는 지금 시점에 새로운 재해석의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계획이 좀 탄탄히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실제 실행계획은 다시 현실성의 문제, 또 역사의 어떤 부분이 여기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있겠다거나 방법론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지향점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 고맙습니다. 1부는 가능하다면 좀 마무리 했으면 싶은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씀,

000 : 저는 처음에 청계천 계획이 한 10년 전에 발표됐을 때부터 좀 의아했던 것이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서울의 하수구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천이었고 그래서 장마 때나 물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걸 좀 2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 주변 역사 유물이죠. 청계천 하수구를 오늘에 되살리겠다, 이걸 아닐 거거

든요. 그래서 관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상박물관 같은 문제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생태나 자연의 문제도 과연 청계천이 정말로 북한산 계곡 같은 그렇게 밭 담그고 놓을 수 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어떤 지향점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대의 활용도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던 하천을 도시 수공간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그게 땅으로 꺼져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사복원, 아까 말씀하신 원래 깊이도 복원을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계천복원이지만 실제로 청계천을 영조시대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00 : 좀 말씀을 드리면 영조시대 그 모습으로 가지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능자체가 조선시대는 하수도였으니까 하수도를 복원하자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개천을 하나의 도시경관을 규정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 관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000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청계천에 있는 여러 교량들이 만들어졌는데 광고가 가장 어색해요. 문화재로 지금 청계천에 있는 유일한 사적인 광고가 청계천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어색하게 생겼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청계천의 도심부 구간은 광고에 어울리는 구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역사복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교량과 어울리는 형태의 경관 또는 구성으로 갖춰주고 그 외부공간은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접근법인데 아주 다른 모습으로 청계천 전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광고를 갖다놓든 수표교를 갖다 놓든 어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갖다 놓는 게 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고와 수표교를 제 자리에 갖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표교를 제 자리에 갖다놔왔을 때 어울리는 경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취지입니다.

000 : 또 다른 말씀? 우리 앞으로 청계천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2 단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울 계획입니까?

000 :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서 복원의 개념과 방향을, 방향과 대상을 모아주시면 그런 부분을 역사는 역사, 도시는 도시분과, 뭐 이런 분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가 계속해서 연구와 검토,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000 : 그래서 이 복원에 관한 원칙, 철학 이런 것을, 또 실제 복원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단칼에 답이 나올 것은 아니고 대개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첫 번째 발표의 의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1부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2부는 생태환경복원에 관한 것인데 우리 000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까.

000 : 제가 요즘에 사건이 많아서 검찰에서 파이스티 관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0 : 다음 생태환경 전제된 청계천인데 000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사회는 000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000 : 도대체 제가 사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단 배석해 주시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청계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지는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본방향, 전체맥락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하수천이냐 아니면 어떻게 재복원 할 것이냐에서는 생태환경의 발표를 듣고 나면 조금 더 얘기가 풍요로워지지 않

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처음에 000 위원장님이 한강시민위원회와 연석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서울의 복원과 관련 되어진 위원회와 한 번쯤 기본계획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제를 해 주실 선생님은 000 연구위원이십니다. 지금 앞에 써진바와 같이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제해 주실 것은 생태환경이 전제된 청계천입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000 : 제가 의뢰받은 부분은 생태환경이 전제된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 생태환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해서 제 나름대로 하천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생태환경 복원에 대해서 제가 조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표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계천유역의 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질과 생태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청계천 유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랑천 합류점 그 전체유역을 저희가 청계천유역이라고 합시다만 전체적으로 복원이 된 게 아니라 태평로입구에서 신답철교 5.8km 복원이 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태평로입구에서 난계로 4.1km 구간, 역사문화구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생태라고 얘기를 할 때 수질에 의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질하고 생태, 이제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왔는지 이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계천의 생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태평로입구에서 난계로 역사문화구간에 대한 일반유형을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이 북한산하고 인왕산, 남산입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체면적 중에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2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및 업무시설지로 현재 되

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불투수율이 65.7%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605km² 중에 47.7%이고 서울시가 외곽으로 산림이 둘러싸여져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불투수율이 한 70% 이상이 되는데 특히 이 청계천유역은 서울시보다 훨씬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빨강계 표시된 이러한 상업 업무지역이 거의 불투수율 90%, 비가 오게 되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물 사용량을 보시면 서울시 평균이 304 정도, 한 사람당, 일인당 사용한 물 양이 304리터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이 지역은 상당히, 두 배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 양이 639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등급현황을 보시면 아까 그 200년, 맨 처음에 청계천을 복원할 때 이 청계천지역에 산 실질적으로 하천의 통수단면이 넉넉한 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년까지 설계빈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청계천의 설계, 통수능을 보시면 태평로입구에서 성북천 합류점 즉, 복원구간을 보시면 현재 50년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98미리의 통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원구간 종점에서 중랑천 합류지점이 80년 통수능을 해가지고 시간당 105미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청계천 반면에 통수능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를 보면 거의 200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단면을 보시면 하폭이 지금 19에서 하류지역에 가게 되면 113미터로 저수로 깊이가 1m에서 3.7m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는 통수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200년 빈도로 확대를 시킬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점유시설을 두거나 아니면 하천 폭을 더 늘리거나 유역 내에 침투시설을 많이 만들어 빗물을 침투시켜서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구간 이 부분은 앞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지금 이 구간이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고 그 하천의 수질하고 수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하천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저희가 BOD1.7이라고 얘기하는 이 좋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을 BOD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BOD3이 물놀이가 가능하나,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BOD3까지를 얘기하는데 BOD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슬기가 살 수 있는 수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슬기가 사는데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못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BOD3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계천의 수질이 1.7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한강물을 다시 한 번 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청천 시에 상당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생태계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실은 제가 이 생태계 쪽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5년 동안 평균수종이 한 581종으로 파악되는데요. 동식물이 청계천으로 유입됐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과거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청계천의 수질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의 수질 연변화됩니다. BOD농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에서 2.3. 2009년에서 2011년인데 이것은 월 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측정 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해 봤을 때 1.4에서 2.3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오면서 점점 BOD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즉, 이것은 하천수질이 오염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BOD3을 초과하지 않은 2.3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깨끗한 수질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질은 한강물을 우리가 상류까지 와서 하천이용수로 공급하는 그러한 수질인 거고 청천 시의 수질입니다. 하지만 우천 시에는 다릅니다. 우천 시에는 상당히 오염된 하수관거하고 중량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지 못한 물은 청계천으로

미처리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염된 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2.3 정도까지라고 하는 것은 청천 시의 수질이라는 겁니다.

총 대장균 균수.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총 대장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으로 되면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 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준에 보시면 수질을 볼 때, 우리가 이 수질을 비교해서 볼 때 총 대장균 균수를 이렇게 볼 때 보통 좋은 물 기준까지 만약에 이것을 유지하려면 총 대장균 균수가 100미리에 1,000균수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1,000의 기준의 좋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훨씬 더 초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청계천 상류지역에서 시민들이 물에 담그고 물놀이를 할 수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인체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체접촉이 이루어지려면 원칙적으로 대장균균수는 불검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 측면을 보시면 총 대장균균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의 생태계는 외부에서 이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버들치가 있는데 버들치는 BOD2, 좋은 물에 살 수 있는 종류입니다. 다슬기는 BOD3.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조사해 봤을 때 좀 의아한 게 이 청계천 구간에 대해서 이 버들치도 살고 피라미도 살고 잉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계천이 깨끗한 물이, BOD3 이하로 청계천물이 공급되는데 이런 피라미나 잉어, 아주 안 좋은 물에 사는 이런 어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종이 산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청계천 유역으로 미처리하수가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총 대장균균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BOD 수질이 2.7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천 시에 청계천으로 미처리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고. 일단 이 청계천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계천의 수질이 BOD3 이하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수질에 맞게끔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청계천으로 유출되는 미처리하수, 저희는 CS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역류수를 처리를 반드시 해 줘야만 청계천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균을 월별로 보시면 7, 8월에 가장 크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좋은 물의 대장균균수가 하천 기준으로 100밀리리터당 1,000개. 그런데 상당히 보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 7, 8월에 특히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것은 CSO가 번번이 배출되고 빈도가 점점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질 개선사업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상청소를 비롯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CSO가 우천 시에 이렇게 역류가 되면 그러한 미처리하수가 하수바닥에 가라앉고 그 가라앉은 것이 청천 시에 보면 녹조, 질소나 인 그런 농도가 높기 때문에 녹조가 형성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상청소라든지 수질개선 공사 등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무단방생시민, 우리가 무단방생을 하지 않도록 시민한테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서식 복원 식재, 수생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생태계 보호와 이용의 균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류 시 어류피해방지 노력, 지금 보면 우리가 물고기 폐사사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우초기에 고농도의 CSO가 원류가 돼서 물고기가 다 죽어가고 있

는데 물고기가 죽을 정도면 다른 생태계,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은, 깨끗한 물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는 미세한 종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고기 폐사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은 생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이 청천 시에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우천 시에 하수관로하고 물재생센터의 시설능력을 초과해서 청계천에 미처리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유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보시면 태평로입구에서 역사문화공간인 난계로까지 4.1km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구간에서 시민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발생오염 부하량이 1년에 한 18만 3천 톤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하수관로하고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게 거의 90%를 처리해 주고 10%에 해당되는 1,870톤이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계천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CSO 56%, 개별 배출 0.2%. 그래서 56.2%. 이중에서 56.2%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월류횟수 CSO 즉, 이 미처리하수가 배출되는 월류가 되는 횟수는 1년에 서른 번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번 동안 이 고농도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EPA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시면 이 CSO 고농도로 발생이 될 때는 BOD가 700입니다. BOD 7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리하수를 BOD200으로 봅니다. 그러면 7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 배 네 배 그렇게 고농도가 우천 시에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금속은 어떠냐면 미처리하수보다 중금속이 거의 다섯 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CSO를 처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청계천의 생태는 정말 회복, 청계천 다음 청계천의 수질, 청천 시의 좋은 물에 해당하는 생태계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이것은 청계천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던 사례인데 보시면 청천 시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하수관구나 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는 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은 미처리하수가 배출되고 이렇게 미처리하수가 배출된 시커먼 물에 의해서 물고기가 죽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모형을 돌려서 일단 우천 시에는 특정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형을 돌려서 예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천 시에는 청계천이 BOD1.3, 상당히 깨끗한 물인데 비가 오면 평균적으로 25.7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5.7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BOD10을 넘게 되면 하천에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5.7, 거의 30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물이라면 거의 시커먼 정도의 물입니다.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무리 그전에 다슬기도 살고 버들치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질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개네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랫부분은 서울시에서 5년간 물고기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폐사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계천에 있어서의 생태계, 생태계가 전제된 청계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이렇게 미처리된 하수가 이쪽으로 유출되는 이 CSO를 일단 저감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계천 복원 전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역사문화구간인 이 구간 4.1km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앞부분, 서울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이 구역에 대해서 CSO 발생량에 대해서 CSO를 처리하기 위해서 10만 톤 정수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검토를 했고 이 10만 톤도 한 곳에 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분산시켜서 5만 톤, 5만 톤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먼저 10만 톤을 한 곳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보시면 현재 58%에 해당되는 오염포화량을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수질 25.7에서 9 정도로 다

운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말단 부분에 대해서는 BOD27을 한 19.3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제가 야까 청계천에 1년에 한 서른 번 정도의 CSO가 유출된다고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 유출횟수도 거의 10회 이하로 저감시킬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SO의 원류회수 기준이 한 연 4회에서 7회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한 곳에 10톤을 설치했을 경우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두 곳에 5만 톤, 5만 톤을 나누어서 CSO 정유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 시면 앞부분은 한 58%지만 두 군데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72%에 해당 되는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왜 크냐면 이 CSO는 초기강우에 고농도로 발생하는 그 고농도 부분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5.7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개선방안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푸른 생태가 흐르는 청계천 회복’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청계천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청천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천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계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방향이 하나입니다. 역사복원은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청계천은 하나입니다. CSO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저감을 시켜서 원류량을 줄이고 원류횟수를 줄 이느냐 그게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계천의 생태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 논의가 됐던 그러한 자료를 제가 협조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5가지로 일단 요약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000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물 공급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물 공급 을 해가지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청계천 구역에 대해서 불투수면을 침투면으로 바뀌어서 자연적인 물 공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청계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청계천을 맨 처음에 복원할 때 그 부

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아래 지하수위가, 서울시의 지하수위가 지표면에서 그 아래로 9.7m 내려가 있는데 특히 이 청계천은 이 아래가 다 모래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도 아래로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손실양이 상당히 커서 여기서 벤토나이트를 깔아서 가능한 유지용수가 하상 아래로 침투되지 않고 하천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유역에다 아무리 침투시설을 만들어서 빗물을 침투시켜도 이 하수물은 절대로, 지하수위가 9.7인데 여기 아래로 거의 3.3 이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단조로운 하천환경으로 어류서식지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축이 단절됐다, 북악산, 인왕산 그런 유역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간중심 경관으로 조성해 주면 이것을 좀 더 생물서식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녹조류 발생, 수질문제 발생,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 시에 미처리하수가 유입되고 미처리하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이 배출되면서 하상에 가라앉았다가 발생하는 녹조류 발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청계천 개선방안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추진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해야 되고 도시유역 관리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추진방향으로 해서 개선안을 하천바닥에 굴곡이 있고 어울과 소를 조성해야 되고 상하류 전반에 걸쳐 동식물 서식공간 위주로 재편, 다양한 수생물과 수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 동 박 수)

000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발표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면 굉장히 심플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위원장단회의에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 안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000 : 생태환경 쪽에서는 오늘 도시생태과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다음번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000 : 000 위원님께서 000 위원님이 좀 더 보충적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여러 위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조금 보충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000 : 먼저 생태분과랑 상관없이 아까 그 역사구간과 상관이 있는데 하천복원이라는 데 그 복원의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도 외국을 봐도 그 복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에서의 복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원시시대의 하천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1700 몇 년도의 그 하천을 복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게 자연의 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 복원이라고 했지만 이걸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만든다, 이 의견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어떻게 하천복원의 목표를 잡느냐, 그건 지금 현시점에서 그 하천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까지를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요새 하천복원의 추세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000 박사님께서 많이 발표해 주셨고 거기에 덧붙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청계천의 생태가 살아나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물이 지금 우천 시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아마도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계천 복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성이 없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인위적으로 하류에서 그것을 펌핑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게 무슨 하천이나, 무너만 하천이지. 이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생태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자손대대로 1년에 80억이나 되는 유지관리비를 그대로 물려줄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유지관리비로 10억만 들게 하자, 이런 목표만 세워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가능한 것, 지금 현재시점에서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이 점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000 :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에서 1차 청계천 복원 시에 별도 배관에 관한 검토를 안 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 시는지. 아마 서울시는 다음에 이것을 발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 80억에서 100억이 드는 것을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줄여서 물려주는 것에 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을 논의하셨는지.

000 : 그 대안을 저보고 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웃음소리)

000 :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다시 하는 데 그 유지관리비가 80억이에요?

000 : 아니,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1년에 80억으로 신문에 났고요. 제가 이는 비공식적인 문서에는 100억이에요. 그럼 이진 아니라고 치더라도 80억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물 값이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000 : 예산이 84억 정도 하는데 실제 한 78억 정도 듭니다. 지금 우리 000 위원님이 더 증가하게 예산을 안 줘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웃음소리)

000 :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부에서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큰 고민이죠. 왜냐면 하천이 아닌 하천을 하천으로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부담인데 말씀처럼 10억으로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얼른 당장 해야죠. 그런 안

조차가 사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만 특별한 묘안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000 : 그게 아니고요. 고민을 안 했어요. 저희는 청계천 처음에 이거 특위가 있었죠? 000 교수님 같이 계셨는데 그 특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묘미나 이런 고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000 : 그 대통령 자체는 시장 때 그렇게는 하셨는데,

000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논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너무 빨리 이 복원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000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길이 6.몇 km잖아요. 독일은 314km 하는 데 거의 삼사십 년 걸려서 해요. 우리나라 6.34km 하는 데 2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청계천 6.4km 하는 데 1년 반 정도에서 끝났어요. 설 계하는데도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논의됐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지 이런 의견을 안 냈던 것은 아닙니다.

000 : 아니 그러니까 안 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해서 결과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 물이 나오고 난 다음, 그다음 시장 때부터는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청 계천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무지 든다. 어떻게 해야 되 냐.’ 고민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고민했을 거란 얘긴데 저희도 사실 그것에 대 해서는 최종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줄여보고,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 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못들은 상태인데요. 그에 따 른 충격적인 것이 CSO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단 방류되는 정제되지 않은 물이 흘 러가서 그렇게 많은, 폐사가 왜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들었었거든요. 그 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심하게 온다는 것은,

000 : 그런데 이 CSO가 무단방류는 아닙니다. 서울시만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모 든 도시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정비가 된 지역에 있어서는 CSO가 다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 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미국의 경우 말씀드 렸듯이 일단 CSO의 월류 횟수를 지금 1년에 4회에서 7회.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수관거, 이 합류식하수관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경제적인 하수관거의 시스템인데 일단 그 관거라든지 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또 대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할까봐 저는 일단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 CSO를 저감하는 방법은 처리장으로 더 많이 보내거나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초기우수관을 설치했을 때 원래는 이 초기관에 유입된 초기우수는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답철교에 지금 CDS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O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수시설을 분산시켜서 만들거나 아니면 대심도를 크게 해서 대심도를 만들거나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CSO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게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000 : 저도 그 관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CSO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을 제가 오늘에야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자꾸 고민이에요. 그렇죠?

000 :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발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청계천변에 엄청나게 큰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 선생님 말씀은 합류시켜버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별도관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하되는 공사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처리 해서 물을 한번 돌리는 방법이 사실상은 하천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처음에 문제를, 저도 청계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사실상 서울시가, 또 공기상 문제로 하기가 어려웠다고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도 또한 기본방향, 기본설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위원회가 두 번째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갈 것이냐,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가 어떤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왔는지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000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수질이 악화되는 요인은 지금 000 위원님이 발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천 시에 초기우수, 처음에는 3Q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상수도를 쓰잖아요. 버리는 물을. 그게 1Q라면 비가 와서 흘러갈 수 있는 양이 처리장으로 가는 게 3Q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가 되어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오는 물, 이것은 초기우수 월류수라고 해서 CSO라고 그러는데 이 양은 하천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청계천으로.

그 청계천으로 나오는 것이 분류가 백운동천하고 중학천에서 나오는 양이 내려오는 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박스에서, 수문이 있는데 수문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인데 지금 수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CSO관이라고 해서 차집관로가 있고 차집관로 안에 큰 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어느 정도는 흐르고 그걸 오버했을 때는 바깥으로 뚫어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천하고 백운동천에서 나오는 것은 차집관로로만 들어가 있고 CSO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득차면 그냥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중학천하고 백운동천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의 수질문제 때문에 늘 여름에 대장균이 몇 만씩 올라가고 그래서 발도 못 담근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문제이고, 000께서 지금 ‘발도 못 담그고 그런 하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들을 별도의 관을 밑으로 빼주든지 아니면 그런 물을 못 들어오게 한 곳에 담아두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아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마 초기에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기간이라는 것,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또 그때 복원에 대한 비용이 한 3,800억 정도의 비용은 청계천고가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잡혔던 내용인데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알고도 못 했던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청계천의 수질, 생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제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고 유일한 것은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000 : 청계천 복원사업 시작할 때 이게 환경평가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식적으로 부위원장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4년 동안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다 됐고 대안에 대한 것도 조성되어졌는데 그때도 초기우수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를 그 당시에 이미 서울시가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3분의 1을 최소한 잡기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면 저류지를 만들어서, 지하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가뭇다가 흘러보내는, 그 당시로서는 최대의 대안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 지금 8만 톤 흘러버린다고 하셨나요?

000 :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게 평균 12만 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2만 톤 해서 14만 톤 총량이 듭니다만 그것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양을 대폭 낮춰서 6만 톤입니다.

000 :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하고 어떤 것으로 본다면 이 생태환경 측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그 정도의 수량 유지용수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을 처음에 우리, 전 이 시장께서 공약 들고 나올 때 멋진 그림을 하나 시민들한테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복원시물레이션을 보였는데 그 그림이 청계천 구조물에 복원된 양재천, 그 물하고 합성을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복원된다고 선을 보였는데 그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흠잡니다. 이 킁킁한 청계천 하수구 들어내고 거기다가 저렇게 맑은 물 흘러보내고 그림 누구나 다 찬성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복원의 그림이, 그것이 상당히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12만 톤, 14만 톤 그런 계산이고 그

외에 공학적인 계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초기부터 과연 청계천에다, 복원 청계천에 이만큼 물을 흘려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계천이 본래 건천이지 않습니까? 이 건천의 생태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뚫어서 나가야지 100% 그야말로 인공하천, 경관하천을 목표로 해서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어느만큼 지속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를 청계천은 건천. 건천이라는 게 물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수량이 적었다는 것인데 그것에다가 기본적으로 청계천의 생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걸 베이스먼트로 해서 유지용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 박사님, 나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현재 많게 14만 톤을 전기로 펌핑 돌려서 흘려보내는데 혹시나, 세 가지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건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 세 가지 요인인데 우선 전력사고가 나서 유지용수가 이를 태면 2시간 동안 공급이 단절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통체가 안 될 때 오염된 초기우수는 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측사고를 이야기했는데 전력사고에 의해서 혹시 공급이 중단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아까 비용문제도 이야기됐습니다만 사실 초기에 물 값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난 지천에 흘려보내는 그 물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가 덜을 해서 결국 비용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물론 상당기간 동안 안 낼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영원히 안 낼 돈인지. 그다음에 그때 또 우리 초기에 이만큼의 유지용수 공급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시인하는 게 OECD에서도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예측이 현실화돼가지고 2020년에 가서 물부족 때문에 수량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공급이 지금같이 될 수 없다고요.

이런 가정을, 극단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늘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렇다면 우리 이번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속가능한 유지용수 공급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 번째는 그런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청계천이라는 것이, 하천이라는 것이 요즘 흔히 하천복원 유형별 대상으로 해서 복원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도심하천이 갖고 있는 유역 외를 살려내는, 다시 말씀드리어서 도심에서 물 흐름의 연장 속에서 이 청계천의 유지용수가 이어져야 되지 비오는 것 따로, 하수 따로 뭐든지 따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세월 보내면 지금과 같이 그냥 계속 자원이 투입되는, 그야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후자의 방법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적인 방식이 따라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초기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복원이라는 것은 대개 도심의 하천유역계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활폐수를 정화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류용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어떤 생태적인 토지이용도 해 주고 결국은 그게 서울의 도시계획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긴 호흡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그런 선 중심의 복원이 아니라 면적중심의 복원이 되면 훨씬 더 지속가능한 복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0 :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000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하천 유지용수 12만 톤 올리던 걸 6만 톤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14만 2천 톤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가장 큰문제가 녹조하고 대장균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12만 톤 했던 것을 만약에 유량을 더 줄인다면, 저도 유량 줄이는 데 적극 찬성을 합니다. 너무 유량이 많고 속도가 너무 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더 줄인다면 아마 녹조가 더 많이 번식하고 대장균균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름철에 물 양을 증가시켜서 보내는 것은 현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광고 이 부근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정말 청계천의 이 하천유량을 줄이려고 한다면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SO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CSO사업은 청계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게 CSO 저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CSO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이 다 수립되어있고 우선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청계천이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CSO 저감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전제가 되려면 가장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게 CSO 저감사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물부족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현재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1993년에 딱 됐는데 지금은 물 수요관리입니다.

(의석에서 : 물부족국가입니다.)

물부족국가 아닙니다. 물수요관리가 필요한 국가이고 물 스트레스가,

000 : 물부족국가 그것은 UN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00 : 그런데 000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면 국토해양부가 2006년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습니다. 가뭄이 들 경우 현재 하천유량이 57%나 줄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4%를 한강물에서 취수해서 도시용수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한강물이 줄었다, 그럼 청계천에 과연 물 줄 것인가. 그렇게는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게 다 물 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가뭄이 들었을 때 청계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대책이 세워지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계절별로 꼭 12만 톤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시민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물 양을 좀 늘리고 유도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방법인데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이라든지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물 양을 좀 줄여도 되는데 대장균은 안 보이지만 녹조는 딱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다 해결하려면 시에서 저감사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000 :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공감하는데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대로 양재천 생태 만들기 할 때 제가 시민위원으로 동참을 했었거든요. 거기 모형하고 여기 모형은 완전히 다른 모형이거든요. 다른 모형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붙여놓았는데 저는 올 때는 그랬어요. ‘청계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왔고요. 저번에는 못 왔지만 오늘 오면서도 그랬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잘 왔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00억 이상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놓고 예상되는 경비 분산시켜줬으니까 70억, 80억이라는데 100억 이상 든다고요.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연생태, 건천으로 그냥 놔뒀다가 필요할 때 갖다 붙일 건가. 제로베이스화 시킨 상태에서 한번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00 : 그리고 아까 그 100억 드는 것을 저희가 줄이려면요, 지금 연간 100억씩 들지 않습니다니까? 그것을 일단은 CSO 저감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400억, 5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몇 년 안에 그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SO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유량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000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심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게 원인은 CSO의 문제다, CSO를 잡지 않으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청계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서산대사의 시처럼 눈 오는 날 아침에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조심해라,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뒤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그런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만들어놓은 발자국은 이제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천복원을 한다고 하면 청계천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반대도 많이 했던 유지용수를 폼핑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계천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시민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부분, 하천이라는 부분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그릇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천을 유역의 개념에서 보고 있어야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유지수가 굉장히 많다, 비용도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하천에 얼마만큼의 물을 흘려야 되는가.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생태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생물, 서식하고 있는 생물 중심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점에서, 물이 수심은 어느 정도 되고 유속은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고사항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이 이 유역 내에서 옛날에 어떠한 특성으로 흐르고 있었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건천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건천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과거 하천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도심하천에 대한 원래의 하천특성, 흐름특성, 유량특성을 분석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도 또 역사공원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것이 홍수문제거든요. 홍수문제도 지금 아까 발표에서는 50년 빈도와 80년 빈도로 지금 현재 설계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200년으로 옮긴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걸 다 파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또 우리가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유역이 불투수율이 65%가 넘는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정화시켜 놓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천을 더 파내려 가야 되고 아니면 폭을 넓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래 우리가 불투수 면적을 늘려봤다면 이것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하수위가 약 8~9m, 깊은 데는 1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있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거든요. 지하철 들어가고 고층건물 들어가고 거기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를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역부분의 종합적인 고민들을 해서 지하수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천수위에서 홍수 때의 하천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건천 때는, 건기 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CSO 같은 경우도 전체 유역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CSO문제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져서 생태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임팩트가 강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줄 수 방안은 뭐냐.

그건 원인이 정확하게 뭐냐면 CSO가 우기 때에, CSO가 나온 것 때문에만 그랬느냐 아니면 평상시에도 누수가 되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틀을 바꿔서 생각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역개념에서 원래 유역은 어떠했고 지금유역은 어떠한가. 그 원인은 어떠한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좀

더 좋은 답들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00 : 더 발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000 :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그 오염에 관계되는 부분이 증가되어져 가고 있다,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생물상에 개체수가 수인지 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가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000 : 아까 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데려와서,

000 :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현재 측정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000 : 예. 그래서 또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2년 4월 24일부터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류지역의 생물상을 조사를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으셨는데 오늘이 2012년 4월이죠? 딱 10년 됐습니다. 그때 생물상을 조사하셨던 자료하고 10년 간 계속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까?

000 : 서울시 생태계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0 :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먹이사슬 회복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면 더 보고 그것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과연 여기에 어떤 생물들이 적합한가. 얼마만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이것 갖다 집어넣고 저것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중금속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아까 보여주셨던 그 데이터 수치상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민감한 것은 과연 청계천에서 생물들에 관련되어진 번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미는 중금속이 축적이 돼서 먼저 죽을 거고 설사 거기서 운 좋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개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99.99%가 기형 아니면 일부 발생되다가 죽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숫자적인 것들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 그것은 2년 전에 그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나 고기들이 못 산다 그랬는데 그 당시 언론에 나올 때는 그때는 고기들이 보니까 알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면 2010년에 하도 춥다 보니까 늦게 들었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치어들이 새까맣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있으면 5월에는 아마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고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00 : 제가 하나 더 옛날에 고민했던 것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 생태계의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은 이게 우리가 처음 복원할 때 너무 하천을 바라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치수중심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수를 곁들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태적인 특성이리든가 혹은 생태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때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이를 떼면 그 당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생태계를 다양화시키려면 물 흐름도 상당히 다양하게, 폭원도 다양하게, 속도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하면 그때 우리가 질문도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12만 톤의 물을 지속적으로 직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200년 빈도를 그 당시에 알았는데 200년 빈도횡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수단면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강화되어 있고 이 5.4km 구간이 속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깊이도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하고 물론 좀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생태계의 다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우리가 그 당시에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수중심이라는 것은 가령 제가 권한은 있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지금 양쪽에 길이 나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보행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어떤 구간의 경우에는 한쪽만 두자, 어떤 구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좁히자, 이런 제안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수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양쪽 다 길을 냈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고기라든가 새들이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그냥 이른바 공급용 이런 하천상태가 계속 유지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계천의 위상이 일반시민에게는 이미 도심의 하천, 휴식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것을 재정립하는 선까지 갈 때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또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논의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잘 복원되었건 아니 복원되었건 그 위상으로 위치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 데에 놓치고 가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토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 000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조 위원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하천만이 아니라 유역의 개념으로 보는 것,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유의 토론이 몇 번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질문으로 던져주신 것들에 대한 완벽한 답이 아니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 단계로의 논의의 진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발제를 들으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우선은 000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물을 유지관리 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덜 나온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청계천 개방했을 당시에 청계천 위에 있었던 나무들이 전부 물주머니를 달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희들은 그 좁은 길뿐만 아니라 그 물주머니를 과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점들이랄지 아니면 도심의 공원으로서의 지금 물에 받을 담그자고 했을 때 보행약자의 접근성 안, 보행약자가 아니라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동아일보 앞에서의

그 뽕뽕뽕뽕한 조형물들 저희들이 이것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접근했을 때 100번 넘어지면 상처 그 자체다, 라고 봤었고.

또 지금 지적하셨던, 왜 양쪽으로 길을 내서, 이 길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뭐냐면 일정하게 한 면이라도 확보해 줌으로써 조금은 더 도심의 생태공원적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배려 내지는 고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션2에서 제기되어진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다가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가 관심 가졌었던 것은 청계천의 복원과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지어야 할 거냐. 지금 시민들에게 이것은 도심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아직은 나오지 않은 과제들, 그러니까 3분과에서 좀 더 많이 논의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자리가 계속되어지면서 심화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진행상 문제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000 :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000 : 그런 것 같죠?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문제를 드러내주셨고, 또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발제를 해 주셨고, 또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토론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청계천에 대한 공부의 시작은 굉장히 잘 궤도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의 이런 자리는 어떻게든 진보일보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0 : 위원님, 다음에는 한번 청계천 현장투어를 처음부터 하류까지 쪽 보시고, 지금 두 번 하는 동안에 실내에서만 하셨는데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고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걸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보면 현장 방문 플러스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세션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 동 박 수)

000 :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셋째 주 금요일인데 현장을 답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오늘 역사문화하고 생태환경 쪽에 문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그 안에 각자 개최하셔서 거기서 좀 더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번 회의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싶고요. 또 추가로 보면 도시 접근성 관계, 걷기 또 실제 아까 수질 쪽 위주로 000 박사님이 해주셨지만 하천에 대한 생태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발제하실 위원님들께서, 000 박사님은 생태 쪽에 더 추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000 교수님 걷기 접근성 관계 쪽에, 그러면 000 위원님은 보행 쪽에도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일 동 박 수)

『17시 51분 종료』